

에이온(Aon) 스테이블코인 보험료 납부 실험과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

강윤지(姜允池) 연구원

요약

글로벌 보험중개사 에이온(Aon)은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보험계약 정산 방식의 시험 적용을 통해,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가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의 속도·투명성·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함. 미국의 GENIUS Act와 후속 규정체계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허용하는 단계에서 나아가, 기업결제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행·감독·집행 체계 정비로 이어지고 있음

- 에이온(Aon)은 글로벌 보험중개사 가운데 처음으로 2026년 3월, 디지털자산 금융 인프라 기업인 코인베이스(Coinbase)와 팩소스(Paxos)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대해, 스테이블코인 기반 정산 방식의 개념검증(Proof of Concept; PoC)을 수행함¹⁾
 - 개념검증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보험료 정산 방식을 실제 거래에 제한적으로 적용해, 해당 방식이 보험 서비스 내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 절차임
 - 이번 거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USDC와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유통되는 PYUSD를 활용해 이뤄졌으며 복수의 스테이블코인, 블록체인망, 거래상대방에 걸친 운용 가능성을 시험하였음
 - USDC와 PYUSD는 각각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의 명칭으로, USDC는 기존 USD Coin에서 유래한 표기이며 PYUSD는 PayPal USD의 줄임말임
 - 동 거래는 특정 보험상품을 디지털자산으로 재구성한 것이 아니라, 보험료 납부와 자금 정산 구간에 블록체인 기반 달러 연동 결제를 적용한 사례임
 - 이번 실험은 디지털자산 관련 자문·보험 역량을 자사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고객의 보험료 납부와 정산 선택지를 넓히려는 취지에서 추진됨
- 에이온과 참여사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 보험료 정산의 속도, 투명성, 유연성, 그리고 위험 이전과 자금 이동의 정합성을 확인함
 - 이번 실험은 보험료를 규제준수형(Regulated) 스테이블코인으로 기존보다 더 빠르고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는지와, 이러한 방식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함
 - 규제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, 공시, 상환, 자금세탁 방지, 제재 준수 등 법적·감독상 요건을 충족하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뜻함
 - 이를 통해 규제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이 기업의 유동성 관리, 자금 정산,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확인됨

1) Aon(2026. 3. 9.), "Aon Announces First Stablecoin Insurance Premium Payment"

- 국제 보험거래에서는 보험계약자, 보험회사, 보험중개사 등 여러 주체 사이에서 자금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므로 은행의 영업시간, 중개은행 경유, 국가별 규제 차이 등에 따라 정산 지연과 운영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
- 에이온은 이를 상용화가 아닌 개념검증으로 규정하면서, 스테이블코인 정산의 활용 전제로 엄격한 관리체계와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관련 역량과 서비스를 규제 요건 및 고객 선택 원칙에 맞춰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힘

○ 에이온의 이번 개념검증은 2025년 7월 제정된 GENIUS Act 이후 조성된 제도 환경 아래 이뤄졌으며, 이 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법률 체계 안에서 규율하는 틀을 마련함

- 미국 GENIUS Act는 ‘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.S. Stablecoins Act’의 약칭으로,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위한 미국 연방법임²⁾
- 이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고정된 금전적 가치로 상환되는 지급·정산용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, 상환능력과 준비자산·준법통제 기준을 갖춘 발행자 중심으로 제도권 편입체계를 마련함
 - 동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100% 준비자산 보유와 월간 공시 의무를 부과하며, 자금세탁 방지, 제재 준수, 고객 확인, 법 집행 협조 의무도 포함함

○ GENIUS Act 제정 이후 미국 정책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허용하는 단계에서 나아가, 실제 기업결제 인프라로 정착시키기 위한 이행·감독·집행 체계 정리로 이어지고 있음

- 2025년 7월, 대통령 산하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고비용의 기존 지급결제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, 재무부와 은행에 GENIUS Act 신속 이행을 촉구함³⁾
- 통화감독청(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; OCC)의 2026년 2월 후속 규정안에는 발행 인가, 수탁, 감사·보고, 해외 발행자 감독, 자본적정성 및 운영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세부 감독기준이 포함됨⁴⁾
- 2026년 4월, 재무부 규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비밀법(Bank Secrecy Act; BSA)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, 관련 준법의무를 적용하도록 함⁵⁾
 - 이 규정안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불법 금융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, 이를 제도권 지급결제 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됨

○ 미국의 후속 규정 정비와 에이온의 추가 검토가 이어지면서, 보험업계에서도 규제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을 보험료 납부와 자금 정산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

2) The White House(2025. 7. 18.), “Fact Sheet: President Donald J. Trump Signs GENIUS Act into Law”

3) The White House(2025. 7. 30.), “Fact Sheet: The President’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 Releases Recommendations to Strengthen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”

4) OCC(2026. 2. 25.), “GENIUS Act Regulations: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”

5) U.S. Department of the Treasury(2026. 4. 8.), “Treasury Proposes Rule to Implement the GENIUS Act’s Requirements to Counter Illicit Finance”